

칠레 광업로열티 법안 하원 최종 통과

작성자주 칠레 대사관 작성일2023-05-17

- 칠레 상원은 지난 5.11(목) 광업로열티 법안 승인 후 하원으로 이관하였으며, 칠레 하원은 5.17(수) 찬성 101표, 기권 3표 및 반대 24표로 동 법안을 최종 승인, 2024년부터 발효될 예정임.
 - 칠레 정부는 동 법안을 통해 칠레 연간 GDP의 0.45%인 약 13억 5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, 동 수익금으로 지방 정부 및 광업 공동체 발전을 위한 3개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임.
 - * 광업로열티 법안은 동 광산의 연간 생산량에 따라 ▲매출액의 1% 증가세 부과, ▲과세 대상 수익에 대해 운영수익률의 8~26%의 차등 세율 적용, ▲로열티 포함 과세율에 대한 46.5%의 최대 상한선 설정 등을 골자로 함.
 - 로열티법안 하원 통과 직후, 에르난도(Marcela Hernando) 칠레 광업부 장관은 동 법안 통과로 지난 수년 간 칠레 광업 부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, 현재 진행 중인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실현 가능성이 확대되었다고 평가함.
 - 반면, 칠레 광업계는 관련 논의가 마무리됨으로써 투자 부분의 불확실성이 감소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, 로열티 도입으로 페루, 호주 등 경쟁국 대비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냄.
-